



코스피	3264.81 (-6.57)	코스닥	1044.98 (+1.67)
금리 (고금리)	1.390 (-0.034)	환율 (원/달러)	1148.50 (+3.10)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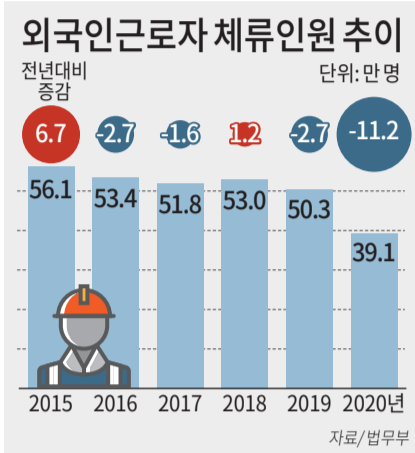
[뉴스] 신한은행 미래형 금융점포 '디지로그' 지점 가보니 02

## 씨마른 외국인 근로자 제조업 일손부족 심각

## 100% 균등배정 '카카오페이' 국민株 되나

### 업업을 업UP하다

외국인 근로자 기근



“짜장님, 우리 없으면 공장 잘 안돌아가죠.”

외국인 근로자가 기근이다.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 등 3D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현장을 지탱해왔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문이 좁아지면서 기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인구절벽으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참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정책이 대표적이다.

### 코로나 장기화로 입국문 좁아져 E-9 비자 입국자 4.4만명 감소

### 주52시간 근무에 인력 기근 가중 3D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가 甲 외국인 근로 이민 정책 등 필요

14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6만1000명까지 증가했던 비전문취업(E-9)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인원은 53만4000명(2016년)→51만8000명(2017년)→53만명(2018년)→50만3000명(2019년)을 기록한 뒤 코로나19가 불거진 지난해엔 39만1000명까지 하락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선 5월 현재 36만3000명까지 줄었다.

중국, 러시아 등에 사는 재외동포들은 H-2 비자를 받아 주로 서비스업에, E-9비자 발급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 제조업이나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한다. 제조업 등의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숫자도 코로나19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당시 5만9822명으로 6만명에 비해 근접했던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실제 도입 인원은 5만837명(2017년)→5만3855명(2018년)→5만1365명(2019년)으로 등락을 거듭하더니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엔 6688명까지 떨어졌다. 전년도보다 무려 4만4677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올해엔 1월부터 5월말까지 3117명만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왔다.

중기중앙회 손성원 외국인력지원부장은 “지난해 입국인원 6688명 가운데 제조업 몫은 4806명이었다. 올해엔 5월말까지 신규 1021명, 재입국특례 1271명 등 2292명의 외국 인력이 제조현장에 공급됐다”면서 “올해 상황이 작년보다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코로나19로 2년째 외국인 노동자 공급이 막히면서 제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장에서선 더욱 아우성이다.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에까지 52시간 근무가 확대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가중돼 더욱 그렇다.

전남지역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간에 긴 브로커나 동료 이야기를 듣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면서 아예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관리가 무척 힘든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공장을 풀가동하는 식품 가공 등 일부 회사의 경우 52시간제까지 맞물리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전했다.

3D업종의 경우 내국인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만 쳐다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경기도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 사장은 “나와 집사람을 포함해 공장서 일하는 사람 15명 중 10명이 외국인이다. 공장장이 의사소통문제를 제기해 내국인을 뽑기위해 공고를 냈지만 오는 사람마다 한두달만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 철학 맞춰 소액 투자자 일반청약 접근성 높여

카카오페이가 국내 기업공개(IPO) 최초로 일반청약 전체 물량을 균등배정으로 배분한다.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여 카카오페이가 새로운 ‘국민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2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는 8월 12일 코스피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페이는 간편결제, 송금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크핀 기업이다.

총 공모주식수는 1700만주이며, 공모 희망가 밴드는 6만3000원~9만6000원이다. 오는 29~3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

하고, 8월 4~5일 일반 청약을 받는다. 카카오페이는 이례적으로 일반청약자 대상 물량을 ‘100% 균등배정’한다. 최소 청약단위인 20주를 청약하나, 최대 청약한도인 32만4000주를 청약하나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배정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이 카카오페이 일반 청약에 대거 몰릴 전망이다. 상장 첫날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례 배정 방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이라는 기업 철학에 맞춰 청약 증거금 100만원만 있으면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카카오페이의 사용자이기도 할 모든 청약

자에게 미래의 주주가 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등배정이 이뤄짐에 따라 일반청약 주관사인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은 고액 자산가를 유치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은 7월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2000원~5000원 가량의 청약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상장 후 공모자금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디지털 손해보험사, 카카오페이증권, 대출중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누적 가입자 수(3600만명) 등을 감안해 기업가치를 18조~21조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한산한 홍대 앞 거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중인 1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앞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을 포함 총 1615명이다. 이는 지난 10일 종전 최대 기록 1378명을 훨씬 웃도는 숫자다.

/손진영 기자 son@

## ‘휴먼 가치’ 더한 한국판 뉴딜 220조 투자

### 文 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추진 사람 투자 강화… 총 사업비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2.0’ 전략 추진을 선언했다. 한국판 뉴딜 2.0은 ▲휴먼뉴딜(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발전) ▲속도감있고 공정한 디지털·그린 전환 추진 ▲220조원 규모의 투자(기존 160조원에서 60조원 확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등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한 교육·돌봄 분야, 청년 정책의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국가발전 전략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 ‘또 하나의 승부수’로 정의한 뒤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려 2025년까지 총사업비를 총 22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부각된 청년 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 격차 해

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은 ‘휴먼 뉴딜’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청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해 제시했다. 여기에는 청년내일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저축장려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지원적금, 청년월세대출, 중기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 인상,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대상 확대(학부생→대학원생) 등도 포함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전국서 동시다발... 직장·초등학교·PC방·리조트서 새 집단감염 /사진 뉴시스  
▲ ‘한명숙’ 결론 뒤집혔다... ‘불공정·불충분·부정유출 있어’

▲ 정영애 장관 “게임 섯다운제 개선하겠다” 입장 선회  
▲ “서울지하철, 노인연령 70대로 상향시 최대 34% 손실 감소”



▲ 조주빈 공범, 대법 간다... 징역 13년 항소심 불복 상고  
▲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 “검찰개혁 과제 더욱 발전시켜야” /사진 뉴시스